

‘낙태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는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보다 낙태로 죽는 아이의 숫자가 두배 가량 많은 실정이다. 최근의 이러한 추세에 대해 낙태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학계, 종교계가 공개적인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동국대 철학과 황필호 교수가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을 펴낸 데 이어 반낙태운동단체인 새생명사랑회(회장 임준기)도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낙태 문제’를 주제로 지난 6일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낙태 실태에 관한 보고’를 발표한 새생명사랑회 장병숙 간사는 “우리나라에서 한해동안 ‘낙태’되는 숫자가 실제로 태어나는 아이의 2배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낙태율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낙태를 인구조절방법

으로 이용한 가족계획정책의 강행 △성교육의 부실 △성감별조사의 일반화 등을 들었다.

지난해 새생명사랑회가 전북 순창지역 여성농민 5백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신 출산과 건강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낙태를 한 여성의 45.3%가 “아이를 더이상 낳고 싶지 않아서”

90.6.10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올바른 피임법 없는 상황에서 ‘여성에게만 책임’은 문제

피임의 한 방법으로 인공유산을 택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러한 낙태 만연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성교육 실시 △성차별적 사회구조 타파 △가족계획사업의 모자보건으로의 방향전환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선 “하느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낙태를 해서는 안된다”는 낙태 반대론도 나왔고, “낙태의 위험성, 비윤리성”을 지적한 몇몇 발표자들은 “낙태 여성들의 아픔도 함께 치료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낙태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회구조의 변

않은 상황에서 여성들만이 낙태의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서구의 경우 ‘낙태’ 문제가 가톨릭쪽과 여성운동,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어 왔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한 번도 여성운동쪽에서 공식적으로 ‘낙태’ 문제를 제기하거나 쟁점화시킨 적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여성해방과 낙태 문제를 연결시켜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황필호 교수가 저술한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이 처음이다.

이 책에서 황 교수는 “피임과 낙태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낙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